

2014년 이집트 헌법의 이슬람관련  
주요 내용 분석\*  
- 정치권력구조와 힘의 균형을 중심으로 -

| 황 병 하\*\* |  
Hwang, Byung-Ha

**Analysis on the Main Topics of Islam in Egyptian  
Constitution 2014**  
- Focused on Political Power Structure and Power Balance -

This paper is intended to research the analysis of the main topics related to Islam in Egyptian Constitution 2014, focused on the political power structure and power balance. The Egyptian Constitution 2012 was annulled by the military coup in the 3 July, 2013. The Egyptian Constitution 2014 was drafted and revised by the request of the civil society and Egyptian military. So It was regarded as a product of military coup and Tamarrud movement. But the Islamic movement and MB had raised questions and protests against the military coup and some big change of the articles on Islam. During discussions of the new constitution, Article 219 of the Constitution 2012 was the main target to be perished. Article 219, embodied the principles of the Islamic Sharia in the Constitution 2012, provoked so many controversies from the opposition party, religious minorities, military, and women activists. However, Article 2 of the Constitution 1971(amended in 1980, reproduced in the 2012 draft) had already

\* 본 논문은 2013년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2차년도 논문임(과제 번호: 2013S1A5A2A01018008).

본 논문은 2014년 12월 20일 한국중동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조선대학교 외국어대학 아랍어과 교수.



proclaimed the Islamic Sharia as the main source of legislation.

In chapter II, the comparison of the articles related to the Islam and Military between the Constitution 2012 and Constitution 2014 were given. Because the Constitution is the main source to understand and analyze the political power structure and power balance. In Chapter III, the process of revision on the Constitution 2014 and political power structure between Islamism and Secularism in Egypt were presented. Also the formation and main roles of the 50 member council in Egyptian Constitution 2014 were researched. In Chapter IV, the Constitution 2014 and power balance between Islamism and Secularism in Egypt were presented. In Constitution 2014, articles on Secularism overwhelmed Islamism, and the article 219 in the Constitution 2012 was annulled. In Chapter V, the meaning and the characteristics of articles related on Islam in the Constitution 2014 and its evaluation were given.

In Egypt, from drafting the Constitution 2012,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19 fell into the Supreme Constitutional Court (SCC), the Judicial authority. This authority has been regarded as a very secular institution. So it is said the confrontation between Islamism and Secularism in Egypt has been prolonged from the period of Nasser till now. On this regard, the Islamic Sharia has provoked a lot of intellectual inquiries and questions from Constitution 1971. In Egypt, the Islamic Sharia has regarded as a authoritative tradition and principles. However, SCC had no choice except accepting Sharia as a tradition in the Constitution 2012 and treating it a little bit roughly and unimportant, the cooperation between the Military and SCC had agreed on annulling the Article 219 in the Constitution 2014. Most of Article 219's terms came from the traditional Sunni methodology based on the Quran and Sunna.

In fact, ex-president Mursi and MB had tried to include Article 219 in the Constitution 2014 to reduce the Military's political and economic power. But the Military had acknowledged MB's intention and tried to collapse Mursi government and Islamic power, and finally taken a chance of military coup through the Tamarrud move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MB and the Military had been worsen from the elections of 2012, and the Egyptian Military never accepted the Mursi government. So it is said the annulling of Article 219 in Constitution 2012 was a product of the Military and al-Sisi, and the Constitution 2014 will be revised whenever al-Sisi wants for the Military.

**[Key words: Egyptian Constitution 2014, Islam, Military, Sharia, al-Sisi, Political Power Structure, Power Balance]**



## I. 서론

2011년 이집트의 아랍 스프링은 20년 이상 통치했던 군부 출신 무바라크 대통령을 퇴진시켰고, 자유민주주의 방식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였으며, 헌법 개정을 통해 사회의 다원화와 다양화를 이룩하였다.<sup>1)</sup> 하지만 이집트 민주화운동이 쟁취한 다원주의 사회는 주요 정치세력들의 주도권 다툼의 장으로 변질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초기 주도권을 잡았던 시민운동권과 야권 중심의 민주화운동 세력은 전통적 이슬람주의 세력인 무슬림형제단(MB)에게 주도권을 넘겨주었고, 이슬람주의 세력의 등장은 결국 세속주의 세력의 결집과 군부의 개입으로 이어졌다. 이는 1990년과 1991년 알제리에서 발생했던 군부의 개입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었다. 사실 아랍 스프링 이후 이집트 군부와 사법부는 정치의 주도권을 한 번도 빼앗기지 않았으며, 2012년 헌법 제정에서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기득권을 유지하였다. 이는 아랍중동 공화제 국가에 등장했던 전통적인 정치권력구조, 즉 군부와 이슬람주의 세력과 세속주의 세력(행정부 및 사법부 중심 기득권 세력)의 삼각 정치권력 투쟁에서 군부는 항상 그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2년 헌법 제정은 MB가 주도하였으며, 이슬람주의 출신 국회의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100인 헌법위원회는 헌법 초안을 완성하는데 1년이나 걸렸다. 왜냐하면 야권 등 세속주의 세력들이 이슬람주의자들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1) “아랍의 봄은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권위주의에도 큰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슬람은 아랍어로 ‘복종’을 뜻한다. 알라에 대해 복종하는 것과 더불어 이슬람 공동체의 종교지도자이자 정치지도자였던 무함마드에 대한 복종이다. 이슬람이 이처럼 권위주의 체제를 갖게 된 것은 창시자 무함마드의 독특한 지위에 기인한다. (중략) 이슬람은 권력과 권위주의를 유지하고 사회와 개인을 통제하는데 정치적으로 가장 동원하기 쉬운 수단이었다. 그러나 이번 아랍권 시민혁명은 이슬람 종교의 권위주의에도 적잖은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최근 아랍권 민주화사태에서 가장 긍정적인 현상 중 하나는 시위대의 구호에 이슬람적인 내용이 상당히 미약하다는 점이다. 현재 아랍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정부 시위는 국가 민족주의적 그리고 세속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최근 중동의 정치변동은 유목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 권위에 도전하는 아래로부터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민주화사태 이후 발생할 중동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다양화와 다원화라고 할 수 있다.”(서정민, 아랍의 봄 이후 새로운 중동의 정치역학, 2014 KIEP 신홍지역연구 통합학술회의, pp. 337-340, 2014. 11. 25.)



100인 헌법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00인 헌법위원회는 대부분 MB가 추천한 이슬람주의자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대중들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다. 100인 헌법위원회는 다양성의 부족과 대표성의 결핍, 그리고 이슬람주의 편향성으로 비난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초안은 2012년 12월 26일 국민투표를 통과하였다. 상당수 국민들이 대중성과 다양성의 부족을 이유로 신헌법을 비난하고 제정을 위한 국민투표에 반대하였지만, 신헌법은 32.8% 투표율에 63.8%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국민투표 결과는 표면적으로 MB와 무르시 등 이슬람주의 세력의 정치적 승리처럼 보였지만, 저조한 투표율은 이집트 대중들의 절대적 지지를 확보하는데 실패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2012년 헌법(총 236조)은 이슬람법인 샤리아(shari'a)<sup>2)</sup>를 이집트 법률의 기본 원리원칙으로 더욱 강화하였다. 사실 샤리아의 역할과 기능은 1971년 헌법과 1980년 수정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었다. 이는 무슬림들에 의해 이슬람식 민주

---

2) 샤리아란 이슬람의 종교법으로서 코란과 순나를 기본으로 하는 도덕적 법전이며 도덕률(moral code)이다. 이는 신의 절대적 무오류 법률을 의미한다. 샤리아는 정치, 경제, 사회범죄, 성범죄, 위생, 음식, 예배, 생활예절, 단식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현재 사우디, 수단, 이란, 브루나이, UAE, 카타르 등은 샤리아를 법의 중요한 근원으로 간주하고 있다. 피끄흐(fiqh: 이슬람 법학)는 불변인 샤리아에 대한 해석으로서 코란과 순나에 대한 해석의 과정과 절차, 그리고 내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끄흐는 불변인 샤리아와 달리 종파나 법학파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샤리아의 1차 해석권은 까디(qadi: 재판관)에게 있으며, 이맘도 책임을 가지고 있다. 샤리아에 대한 해석인 피끄흐는 코란, 순나, 이즈마(ijma), 유추(qiyas) 및 개인적 판단(ijtihad)을 법의 근원으로 삼고 있다. 피끄흐는 해석에 대한 기준의 변화가 가능하며, 종교, 정치, 경제, 사회, 헌법, 절차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피끄흐의 5가지 범주는 fard(의무), mustahabb(권고), mubah(중립), makruh(guadh), haram(금지)이다. 현재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무슬림 공동체는 샤리아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혼, 유산상속, 가족법 등에는 샤리아를 적용하고 있다. 샤리아는 세속주의 법학(시민법, 공민법, 종교법)에서 종교법으로 분류되고 있다. 샤리아와 세속법이 갈등을 겪고 있는 주요 대상은 민주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여성인권 분야 등이다. 샤리아의 어원은 사막에서 물웅덩이(water hole)에 이르는 길에서 유래되었으며, 여기에서 유래되어 "따라야 할 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코란 45:18에는 "우리는 너에게 종교의 올바른 길을 제시하노니, 그 길(shari'a)을 따라라. 그리고 알지 못하는 자들의 욕망을 따르지 마라."고 언급되어 있다. 종교법의 개념으로서 샤리아는 예언자 무함마드가 제시한 이슬람의 신법을 의미하며, qanunun islamiyyun(이슬람법)을 의미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샤리아와 피끄흐의 차이점은 샤리아의 내용은 불변인 반면, 샤리아에 대한 인간의 해석인 피끄흐는 종파나 법학파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주의로 간주되었다.<sup>3)</sup> 2012년 헌법은 샤리아의 기본 원리원칙에 순니 이슬람과 무슬림 학자들에 의해 인정된 전통적 근거들을 포함시켰을 뿐이었다(황병하 2013, 156; 2014, 166).<sup>4)</sup> 이는 이집트 헌법에 샤리아의 의미를 확대 적용했다는 의미 이외에도 샤리아의 해석을 의미하는 피끄흐(Fiqh)의 권한을 아즈하르 무슬림 학자들에게 부여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슬람 역사에서 샤리아와 피끄흐의 관계는 무슬림 학자들과 통치자 사이의 세력균형(power balance)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sup>5)</sup> MB와 무르시 정권은 2012년 헌법에서 군부와 사법부의 정치권력을 제한하고 이슬람 및 시민의 권한을 확대하려 시도하였으나, 결국 군부와 사법부의 견제로 실패하였다.

2012년 헌법이 이슬람의 권위를 강화하였고 MB의 의도를 반영했다는 부정적 평가가 전해지면서, 이슬람주의 세력을 제외한 모든 야권 세력들이 MB의 정치정당인 자유정의당(FJP)의 국가권력 장악과 무르시 대통령의 행정부 장악 시도에 강력히 저항하였다.<sup>6)</sup> 양 집단 간 갈등은 2013년 6월 30일 타마르루드

3) 이성수(2013). “이슬람식 민주주의의 모델과 아랍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중동학회논총』 제33권 제3호, pp. 102~103.

4) <http://egyptlections.carnegieendowment.org/2012/12/14/islam-in-egypts-new-constitution>

5) 일부 이슬람 학자들은 샤리아를 공식적인 법률이 아니라 일련의 도덕적 규범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샤리아가 이슬람공동체의 관행과 예절에 근거하여 무슬림에게 부여한 의무사항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샤리아에 대한 해석권은 9세기 이후 율리마들에게 부여되었다. 이는 율리마와 통치자들 사이의 권력 분산, 통치자의 행동범위 제한, 통치자의 독자적 법률 공포 및 해석권한 제한, 그리고 통치자의 이슬람공동체로부터의 지속적 지지 확보 요구 등을 의미하였다. 이로 인해 통치자와 율리마 사이의 힘의 균형 관계는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되고 개선되기도 하였지만, 결코 결정적으로 변경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19세기 유럽 제국주의의 이슬람세계 침략과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슬람세계의 독립, 근대화, 국가 건설, 정부 수립, 법체계 확립 이후 샤리아의 해석에 대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Leiden 대학교 법학교수 Jan Michiel Otto는 “인류학적 조사에 의하면, 중심부가 아닌 변방에 거주하고 있는 이슬람공동체 주민들은 그들의 규범과 관행이 얼마나 전통, 부족관습, 그리고 종교에 근거하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샤리아에 부정적(도전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역의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들을 지역 관습과 전통문화를 감시하는 이슬람종교나 샤리아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물론 고위 종교학자들이나 관리들은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라고 언급하였다. (Otto, Jan Michiel, (2008) *Shari'a and National Law in Muslim Countries*, Leiden: Amsterdam Univ. Press, p. 30.) 그의 언급은 현대 이슬람국가들의 정치와 종교 관계에서 샤리아가 어떤 위치에 있고, 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근거이다. 이는 개별 이슬람국가 내에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샤리아에 대한 공감대나 동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http://en.wikipedia/wiki/shari'a>

6) 이에 대해 무르시 대통령은 국가의 변화, 특히 군부의 개혁을 추구하기 위해 헌법 실행이 반대



(Tamarrud) 운동으로 귀결되었으며, 이는 군부의 개입을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 군부는 2013년 7월 3일 쿠데타를 통해 무르시 정권을 퇴진시켰고, 2012년 헌법의 효력을 중지시켰다. 이로써 이집트에서 MB와 무르시가 시도했던 이슬람주의와 힘의 균형 노력은 군부와 사법부 등 기득권 세력과 세속주의 세력에 의해 좌절되었다.

2014년 헌법 개정과 관련하여 임시대통령 아들리 만수르 (Adly Mansur)는 헌법 포고문을 통해 10인 위원회를 구성하였다.<sup>7)</sup> 이 위원회는 완전히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2012년 헌법을 재검토하고 문제점을 수정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하지만 결과는 2012년 헌법의 완전 수정이었다. 대통령 포고문 10호는 10인 위원회가 제출한 헌법 초안을 논의할 50인 헌법위원회(A Committee of 50 Representatives)를 구성하고, 10인 위원회는 한 달 안에 헌법 초안을 제출하라고 명령하였다. 50인 헌법위원회는 내각이 추천한 여성계, 군부, 청년집단, 종교계 등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었지만, 이슬람주의 세력은 거의 배제되었고 살라피스트 누르당 추천 1명만 참여하였다. 10인 위원회가 제출한 초안은 2013년 12월 50인 헌법위원회로 제출되었으며, 50인 헌법위원회에서 결정된 초안은 2014년 1월 14~15일 간 국민투표를 통해 38.6% 투

---

시 필요하다고 역설했지만, 야권의 저항은 이슬람주의 세력과 세속주의 세력 간 충돌로 귀결되었다. 2013년 1월 25일 무바라크 정권을 퇴출시킨 민주 혁명 2주년 기념식에서 친 무르시 세력과 반 무르시 세력 간 충돌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이집트 내 다양한 집단 간 폭력이 발생하였으며, 이슬람주의 세력과 세속주의 세력 간 양극화도 더욱 확대되었다.

- 7) 2013년 7월 3일 군부쿠데타를 성공시킨 군총사령관 압드 알 파타 알 시시는 군부는 정치에 개입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전제하면서 향후 정치일정(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첫째, 현행 헌법의 효력을 정지한다. 둘째,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 최고헌법재판소(SCC: Supreme Constitutional Court)가 국가를 운영한다. 셋째, 새로운 임시 정부를 구성하고, SCC는 국회의원 선거법을 조속히 통과시킨다. 넷째, 효력이 정지된 현행 헌법 중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조항들을 수정할 위원회를 구성한다. 다섯째, 미디어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미디어 법규를 제정한다. 여섯째, 국민적 화해를 실현시키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한다. 일곱째,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에 청년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한다. 헌법과 관련하여 2013년 7월 3일의 발표에는 2012년 헌법의 효력을 중지하며, 2012년 헌법의 조항들 중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수정할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50인 헌법위원회와 10인 헌법수정 기술위원회가 구성되고, 2014년 1월 14~15일 헌법 수정안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진 것은 위 선언에 근거한 것이었다. <http://english.ahram.org.eg/News/75631.aspx>

표율에 98.1%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역시 저조한 투표율은 세속주의 임시정부도 이집트 대중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본 논문은 2011년 아랍 스프링 이후 이집트에 등장한 정치권력구조의 변화와 힘의 균형 노력, 그리고 군부의 재등장 과정을 2012년과 2014년 헌법의 이슬람관련 주요 내용과 군부 및 사법부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향후 이집트의 이슬람 정책과 군부의 대응, 그리고 정치적·사회적 변화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활용하며, 우리의 대 아랍중동 정책 수립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4년 헌법 개정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50인 헌법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정치권력구조와 힘의 균형 차원에서 고찰하고, 2012년과 2014년 헌법의 이슬람과 군부 관련 내용을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향후 이집트 알 시시 정부의 대 이슬람 정책, 정치적·사회적 변화, 군부의 역할과 기능, 이집트 이슬람주의와 MB의 미래, 이집트의 세속주의로의 변화에 대한 예측, 그리고 아랍중동국가들의 대 이슬람 정책을 예측하는데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독립변수로 정치권력구조와 힘의 균형을 설정하였고, 종속변수로 2012년 헌법과 2014년 헌법의 이슬람, 군부, 사법부 관련 조항을 설정하였다.

		2012 헌법	2014 헌법	
아랍 스프링 이후 정치민주화	정치권력구조	-이슬람관련 조항 (2, 3, 4, 43, 219) -군부관련 조항 (147, 185, 197) -사법부관련 조항 (169, 170, 176)	-이슬람관련 조항 (2, 7, 74) -군부관련 조항 (153, 201, 203, 234) -사법부관련 조항 (185, 186, 193)	이슬람주의 vs. 세속주의  ↓  이슬람주의 패배 (군부와 사법부 등 세속주의 승리)
	힘의 균형	-이슬람주의관련 조항 (2, 4, 6, 219) -세속주의관련 조항 (133, 147, 169, 170, 176, 195, 197, 198)	-이슬람주의관련 조항 (2, 7, 74) -세속주의관련 조항 (153, 201, 203, 234, 193)	



## II. 2012년과 2014년 헌법의 이슬람관련 주요 내용 비교

1971년 헌법이 제정된 이후 40년 동안 커다란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오던 이집트 헌법은 2011년 민주화운동 이후 대중들의 요구에 의해 2012년 신헌법으로 제정되면서 중대한 변화를 겪었다. 하지만 2012년 헌법은 불과 1년도 되지 못해서 군부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되었으며, 2014년 대중과 군부는 새로운 헌법을 탄생시켰다. 2012년 헌법에 대한 고찰 결과, 이집트 이슬람주의 세력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세력들은 2012년 헌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특히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조항은 이슬람, 입법, 사법, 여성, 타 종교, 그리고 군부 관련 조항이었다. 이런 논란이 등장한 배경에는 무르시와 MB의 친 이슬람적 성향, 이슬람주의와 세속주의의 대립, 그리고 군부와 사법부의 기득권 유지 노력 등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sup>8)</sup>

본 장은 2012년 헌법과 2014년 헌법을 군부, 이슬람, 기본권, 그리고 사법부 관련 조항으로 구분하여 그 핵심 내용을 상호 비교하고자 한다.<sup>9)</sup>

### 1. 군부관련 헌법 수정 내용

구분	2012년 헌법	2014년 헌법
군부 국방장관 임명	-147조: 대통령은 법률에 따라 민간과 군부의 주요 인물을 임명하고 면직하며, 외교 대표단을 임명하고 면직하고, 외국과 단체들의 정치 대표들을 신임한다.	-153조: 대통령은 법률에 따라 민간과 군부의 주요 인물들과 외교 대표단들을 임명하고 면직하며, 외국과 단체들의 정치 대표단들을 신임한다. -201조: 국방장관은 군대의 총사령관이며,

8) 황병하(2014). "2012년 이집트 헌법의 주요 내용 분석 및 평가",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24-3집, pp. 149~189 참조.

9) 2012년 헌법은 al-Jam'iyya al-Ta'sisiyya, Mashru' Dustur Jumhuriyyat Misr al-Arabiyya와 Constitution Preamble(<http://www.egyptindependent.com>)을 참고하였고, 2014년 헌법은 Jumhuriyyat Misr al-Arabiyya Mashru' Dustur 2013과 Proposed Amendments to the Costitution(<http://www.idea.int>)을 참고하였다. 1971년, 2012년, 2014년 헌법의 비교는 Comparing Egypt's Constitutions (<http://carnegieendowment.org/files/comparing-Egypt-s-constitution.pdf>)를 참고하였다.



구분	2012년 헌법	2014년 헌법
	<p>-195조: 국방장관은 군대의 총사령관이며, 군부 장교들 중에서 임명된다.</p>	<p>군부 장교들 중에서 임명된다. -234조: 국방장관은 최고군사위원회(SCAF)의 동의를 받아 임명된다. 본 조항은 헌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부터 2년의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에만 적용된다.</p>
<p>군부 예산</p>	<p>-197조: 국가국방위원회(NDC)가 창설되며,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국회의장, 슈라위원회 의장, 총리, 국방장관, 외무장관, 재무장관, 내무장관, 정보부장, 군총사령관, 해군사령관, 공군사령관, 군작전사령관, 군정보부장이 위원이 된다.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옵서버로 참여시킨다. 위원회는 국가의 안녕과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과 관련된 문제와 군부의 예산에 관한 사항들을 다룬다. 위원회는 군부와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다. 이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p>	<p>-203조: 국가국방위원회가 설립되며,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총리, 국회의장, 국방장관, 외무장관, 재무장관, 내무장관, 정보부장, 군총사령관, 해군사령관, 공군사령관, 군작전사령관, 군정보부장이 위원이 된다. 위원회는 국가의 안녕과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과 관련된 문제와 국가 예산에 단독으로 편성되어 있는 군부의 예산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위원회는 군부의 법률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한다. 이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위원회가 군부의 예산을 다룰 때는 군부 재정 담당 부서의 장, 국회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 국회 국가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한다.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옵서버로 참여시킨다.</p>
<p>군사 재판</p>	<p>-198조: 군부의 사법제도는 군대, 군인, 군속에 관련된 모든 범죄를 독자적으로 재판하는 독립권을 가진다. 민간인은 군대에 해를 끼치는 범죄를 제외하고 군사법정에 회부되지 않는다. 법률은 범죄의 범주와 군사법정에서 다루어질 사항들을 명기한다. 군사법부의 위원들은 독립권을 가지며, 면직될 수 없다. 이들은 면책특권, 안전 보장권, 다른 사법부 위원들에게 명시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p>	<p>-204조: 군부의 사법제도는 군대, 군인, 군속,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모든 범죄들과 정보부 요원들이 업무 도중 또는 업무 때문에 저지른 모든 범죄들을 독자적으로 재판하는 독립권을 가진다. 민간인은 군대 시설, 군부대, 군이 관리하는 지역 내의 모든 것, 군부대나 국경 지역으로 명시된 영역 내의 시설, 장비, 문서, 군사기밀, 공공자산 및 군부대 공장에 대한 범죄, 군 징집과 관련된 범죄, 업무를 수행 중인 군 장교나 군속에 대한 범죄 등에 대한 직접 공격을 제외하고 군사법정에 회부되지 않는다. 법률은 범죄의 범주와 군사법정에서 다루어질 사항들을 명기한다. 군사법부의 위원들은 독립권을 가지며, 면직될 수 없다. 이들은 면책특권, 안전 보장권, 다른 사법부 위원들에게 명시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p>

## 2. 이슬람관련 헌법 수정 내용

구분	2012년 헌법	2014년 헌법
소수 종교집단	-3조: 이집트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의 종교법의 원리원칙들은 개인 지위법, 종교문제, 그리고 정신적 지도자의 선택에 대한 주요 법 근원이 된다.	-3조: 이집트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의 종교법의 원리원칙들은 개인의 지위, 종교문제, 그리고 정신적 지도자의 선택 등을 규정하는 주요 법 근원이 된다.
종교의 자유	-43조: 믿음의 자유는 불가침의 권리이다. 국가는 법률이 규정한 바와 같이 종교 의식을 수행하고 종교를 숭배하는 장소를 설립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한다.	-64조: 믿음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다. 계시된 종교의 추종자의 종교 의식 수행과 숭배 장소 설립의 자유는 법률에 의해 명시된 권리이다.
샤리아와 이슬람 원칙	-2조: 이슬람은 국가 종교이고, 아랍어는 공식 언어이다. 이슬람법 샤리아의 원칙들은 법률의 근원이다.  -219조: 이슬람 샤리아의 기본 원칙은 일반 총론(adilla kulliya), 기본법 규정(qawa'id usuli), 실정법 규정(qawa'id fiqhyya), 그리고 순니 이슬람과 대다수 무슬림학자들의 교리해석에 의해 인정된 전통적 원칙들을 포함한다.	-2조: 이슬람은 국가 종교이고, 아랍어는 공식 언어이다. 이슬람법 샤리아의 원칙들은 법률의 근원이다.  -삭제(언급 없음)
알 아즈하르	-4조: 알 아즈하르는 내부 문제에 대해 독립적 자율성을 가지는 독립적 이슬람기구이며, 이집트와 전 세계에서 이슬람 선교, 신학과 아랍어 교육에 책임을 가진다. 알 아즈하르의 최고 학자들은 이슬람법에 내포된 문제들에 대해 자문을 수행한다. 알 아즈하르의 최고 성직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며, 면직될 수 없다. 최고 성직자 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알 아즈하르의 최고 성직자를 임명하는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알 아즈하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기금을 보장한다. 이상의 내용은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7조: 알 아즈하르는 내부 문제에 대해 독립적 권한을 가지는 독립적 이슬람기구이다. 알 아즈하르는 종교학과 이슬람관련 사항에 대해 중요한 권한을 가지는 기구이다. 알 아즈하르는 이집트와 전 세계에 이슬람을 선교하고, 종교학을 전파하며, 아랍어를 보급하는 책임을 가진다. 국가는 알 아즈하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재정적 몫을 지원한다. 알 아즈하르의 최고 성직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며, 면직될 수 없다. 최고 성직자 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알 아즈하르 최고 성직자를 임명하는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 3. 기본권관련 헌법 수정 내용

구분	2012년 헌법	2014년 헌법
언론의 자유	<p>-48조: 언론, 인쇄, 출판, 그리고 대중 매체의 자유는 보장된다. 매스컴은 사회에 봉사하고 대중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표현하는데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국가와 사회의 기본 원칙에 따라야 하고, 권리와 자유와 대중적 책무를 준수해야 하며, 시민 개인 사생활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고, 국가 안전의 필요성을 존중해야 한다. 매스컴의 폐쇄와 압류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매스컴에 대한 통제는 전쟁이나 대중 동원의 시기에 부과될 수 있는 특별 검열의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된다.</p> <p>-49조: 모든 형태의 신문을 출판하고 소유하는 자유는 모든 이집트 자연인과 법률상 이집트인에게 신고서 접수로 보장된다. 라디오 방송국, TV 방송국,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의 설립은 법률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p>	<p>-70조: 언론과 출판, 신문, 시각, 음향, 그리고 디지털 상품 판매의 자유는 보장된다. 자연인 또는 법률상 이집트인은 신문을 소유하고 발간하는 권리와 영상, 음향, 디지털 미디어 판매 대리점을 설립하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신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단 신고서를 접수하면 발행된다. 온라인 신문과 함께 영상과 라디오 방송국의 설립과 소유는 법률로 정한다.</p> <p>-71조: 이집트 신문과 미디어를 검열, 압류, 정간, 폐쇄하는 어떤 행위도 금지된다. 전쟁이나 총동원령 기간 중에는 제한된 검열이 허용된다. 대중 출판 간행물에 의한 범죄에는 어떤 보호 제재도 가해지지 않는다. 폭력 선동에 관련된 범죄나 시민권 차별에 의한 범죄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법으로 정한다.</p> <p>-72조: 국가는 모든 언론 기관과 미디어 방송국이 중립성을 유지하고 모든 정치적, 지적, 사회적 관심사를 대변하는 의견을 표현하는 경우 그 독립성을 보장하며, 대중의 의견을 전달하는 동등성과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p>
사상과 표현의 자유	<p>-45조: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개인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말로, 글로, 그림으로, 그리고 어떤 형태의 출판과 표현 방식으로 의견을 표현할 권리도 가진다.</p> <p>-31조: 존엄성은 모든 개인의 권리이며, 국가가 보호한다. 개인에 대한 모욕이나 경멸은 금지된다.</p> <p>-44조: 모든 종교 메시지나 예언자에 대한 모욕이나 남용은 금지된다.</p>	<p>-65조: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모든 개인은 말, 글, 이미지, 그리고 다른 표현과 출판 수단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p>



구분	2012년 헌법	2014년 헌법
집회의 자유	<p>-50조: 시민은 비무장이고 법이 정한 신고 절차를 거친 대중 모임, 행진, 평화적 시위를 개최할 권리를 가진다. 개인적 집회의 권리는 사전 통지의 필요 없이 보장되어 진다. 보안 요원은 개인적 모임에 참석할 수도 없고 모임을 차단할 수도 없다.</p> <p>-51조: 시민은 오직 신고만으로 결사체나 시민 단체를 단체들은 자유롭게 운영되고, 법인체로 간주된다. 정부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법원의 명령이 없는 한 이 단체들이나 행정적 조직체를 해산할 수 없다.</p>	<p>-73조: 시민은 어떤 형태의 무기도 소지하지 않는 한 법률이 정한 통지만으로 대중 모임, 행진, 시위, 모든 형태의 평화적 항의를 조직할 권한을 가진다. 평화적이고 개인적인 모임을 개최할 권리는 사전 통지를 할 필요 없이 보장된다. 보안 요원은 이런 모임들에 참여하거나 추적하거나 도청할 수 없다.</p> <p>-75조: 시민은 민주주의의 기본에 근거하여 비정부 기구나 단체를 구성할 권리를 가진다. 이 기구들은 통지만으로 법인체 성격을 확보한다. 이들의 자유 활동은 허용된다. 행정 기관은 사법적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런 조직들의 문제에 개입할 수 없으며, 조직들과 이사회 그리고 신탁통치 이사회를 해산할 수도 없다.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조나 행위가 비밀스럽게 진행되거나 군사나 준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비정부기구나 단체의 설립과 유지는 금지된다.</p>
정치 정당	<p>-6조: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 원칙과 슈라(자문), 시민권(모든 시민은 권리와 의무에서 동등하다.), 다당제 다원주의, 평화적 정권 교체, 권력의 분산과 균형, 법규, 그리고 인권과 자유에 대한 존중에 근거한다. 이런 사항들은 헌법에 세부적으로 명시된다. 성과 인종 그리고 종교에 근거한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정치 정당의 설립은 금지된다.</p>	<p>-74조: 시민은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통지만으로 정치 정당을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종교나 성, 인종, 분파 그리고 지리적 위치에 근거한 차별에 근거한 정치 정당의 설립이나 정치 행위 실행은 금지된다. 또한 민주주의, 비밀주의에 반하는 정치 행위의 실행이나 군사적 또는 준군사적 성격을 지닌 정치 행위는 금지된다. 정당은 오직 사법적 명령에 의해서만 해산된다.</p>



#### 4. 사법부관련 헌법 수정 내용

구분	2012년 헌법	2014년 헌법
최고헌법재판소 (SCC)	-176조: 최고헌법재판소는 소장과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을 추천할 사법 기관과 기타 기관은 법률로 정하며, 임명 방법과 자격 요건도 법으로 규정한다. 임명은 대통령의 칙령으로 이루어진다.	-193조: 최고헌법재판소는 소장과 일정수의 소장 대리인들로 구성된다. 최고헌법재판소의 최고위원회는 소장과 일정수의 기관장, 고문, 부 고문들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총회는 3명의 헌법재판소 최고위 부소장들 중 한 명을 소장으로 선출한다. 또한 총회는 부소장들과 최고위원회 위원들을 선출하며, 이들의 임명은 대통령 칙령으로 정한다. 위에 언급된 과정들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가위원회	-174조: 국가위원회는 독립적인 사법 기구이며, 행정적 논쟁이나 행정적 결정에 내포된 논쟁들을 판결하는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다. 또한 국회의의는 징계 소송 절차와 청구 소송 문제를 다루며, 법률에 정해진 법적 문제들을 판결하고, 이와 관련된 법안과 결의안을 검토하고 입안하며, 국가가 당사자인 계약들을 검토한다. 이외의 권한들은 법으로 정한다.	-190조: 국가위원회는 독립적인 사법 기구이며, 행정적 논쟁이나 징계 소송, 청구 소송, 그리고 국가의 결정에 내포된 논쟁들을 판결하는 독립적 권한을 가진다. 또한 국가위원회는 법률이 정한 기구들의 법적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독립적 권한을 가지며, 법안과 결의안을 검토하고 입안하며, 국가나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계약들의 초안을 검토한다. 이외의 권한들은 법으로 정한다.

### III. 2014년 헌법과 정치권력구조 변화:

#### 이슬람주의 vs. 세속주의

##### 1. 이슬람주의 세력의 약화

2011년 아랍 스프링 이후 이집트는 헌법 제정 및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치 일정을 거쳤다.

일자	내용	비고
2011년 1월 25일	-이집트 아랍 스프링 발발 -무바라크 정부에 대한 반정부 시위 시작	-이슬람주의 증가
2011년 2월 11일	-이집트 아랍 스프링 성공(18일간 시위) -무바라크 대통령 사임	-세속주의 몰락
2012년 6월 24일	-무슬림형제단 소속 무르시 대통령 선거 승리	-이슬람주의 승리
2012년 12월 26일	-무르시 대통령 선거로 신헌법 제정 공표 -32.8% 투표율에 63.8% 찬성률	-이슬람주의 승리
2013년 6월 30일	-무르시 취임 1주년 -대규모 타마르르드(불복종) 민중 시위 발생	-이슬람주의 패배
2013년 7월 3일	-이집트 군부 쿠데타 발생 -무르시 대통령 축출	-이슬람주의 몰락
2013년 8월 7일	-50인 헌법위원회 구성	-세속주의 증가
2013년 8월 14일	-군부의 강경 진압으로 수 백 명의 무르시 지지자 피살	
2013년 11월 4일	-무르시 전 대통령 재판에 회부	
2014년 1월 14~15일	-이집트 개정 헌법 투표 -38.6% 투표율에 98.1% 찬성률	-세속주의 승리
2014년 5월 29일	-대통령 선거로 압드 알 파타흐 알 시시 당선 -46% 투표율에 93% 득표율	-세속주의 증가
2014년 12월 현재	-국회의원 선거 미실시	

2014년 이집트의 헌법 개정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논란을 겪었던 분야는 이슬람관련 분야였다. 왜냐하면 이집트 현대 역사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두 집단은 세속주의 군부 세력과 이슬람주의 세력이었으며, 이들의 갈등은 이집트 정치권력구조와 힘의 균형에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1년 이후 이집트의 정치권력구조와 힘의 균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속주의와 이슬람주의의 갈등관계와 2011년 아랍 스프링 이후 군부와 이슬람주의 세력 간의 관계를 고찰해야 한다. 이러한 관계를 고찰하는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비교 대상들 중 하나가 헌법이다. 왜냐하면 헌법에는 한 국가의 정치, 행정, 사법, 경제, 군부, 종교, 사회, 언론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헌법의

내용은 그 국가의 정치권력구조와 힘의 균형 상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이기 때문이다.

아랍 스프링의 결과물인 2012년 헌법의 주요 내용 중 이슬람주의와 세속주의 세력이 가장 첨예하게 의견 대립을 보였던 이슬람관련 조항은 2조, 4조, 그리고 219조였다. 2012년 헌법 2조는 1971년 헌법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는 내용이었다. 헌법 4조는 알 아즈하르에 법률에 대한 해석권과 선고, 신학전파, 아랍어 교육에 대한 포괄적 역할을 부여하였다. 이에 대해 타 종교나 소수집단은 헌법이 알 아즈하르에 대해 지나친 특혜를 베풀고 있으며, 무르시 정권의 친 이슬람정책이 도를 넘어 섰다고 지적하였다. 헌법 219조에 대해 타 종교집단이나 세속주의자들은 2012년 헌법이 이집트 헌법을 중세의 전통주의 이슬람 법학에 묶으려 한다고 비판하였다.<sup>10)</sup>

2012년 헌법 219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헌법 2조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헌법 2조의 핵심 내용은 이집트 헌법의 주요 근거가 이슬람 샤리아의 원리원칙이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헌법 이전까지 세속주의 성향을 띠고 있었던 SCC는 중세의 강경보수적인 이슬람 원리원칙이 아니라 현대적 이성주의에 근거하여 이슬람법을 해석하였다. 이는 SCC가 전통보수적인 순니 법학과 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통적인 해석을 따르지도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2012년 헌법 219조가 탄생된 배경에는 이슬람주의자와 비 이슬람주의자 모두의 공감대, 즉 전통주의와 현대주의 법학자들의 합의가 존재하고 있었다. 사실 100인 헌법위원회의 MB 소속 이슬람주의 의원들은 219조 제정의 직접 당사자들이 아니었다. 알 아즈하르를 헌법에 포함시킨 당사자는 비 이슬람주의자들이었다. 이는 219조의 내용이 헌법위원회 내부와 외부 제 단위의 협상의 산물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19조가 탄생되는 과정에서 이슬람 샤리아에 대한 논쟁을 벌인 세 주체는 순니 신전통주의 학자들 (Neo Traditionalists)과 SCC, 그리고 살리피 학자들 (Salafis)이었다. 이 과정에서 SCC의 현대적 세속주의 학자들과 살라피 학자들

10) <http://english.ahram.org.eg/News/81649.aspx>



은 침예하게 대립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살라피 이슬람주의 세력과 비 이슬람주의 세력 간 절충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알 아즈하르와 많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MB 의원들이 219조의 혜택을 받았던 것이다. 사실 헌법 219조의 해석과 운영에 관련된 주요 기관들은 내각의 행정 기구들, 마즐리스 알 다울라 (Majlis al-Dawla), 의회, 알 아즈하르, SCC 등 세속주의자들이었으며, MB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 결국 2012년 헌법 219조는 이집트 내 정치권력 경쟁 세력들이 헌법 2조의 샤리아에 관한 논쟁을 벌이면서 어떤 방식으로 논쟁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상호 고민 끝에 내린 절충과 변화였다고 말할 수 있다.<sup>11)</sup> 문제는 이슬람 국가를 표방하는 이집트에서 샤리아와 알 아즈하르의 법률 해석권에 대한 논쟁이 이후에도 지속되었다는 점과 219조에 대한 논쟁이 이집트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는 점이었는데, 결국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219조는 2014년 헌법 개정 당시 폐지되었다. 이는 세속주의 세력인 군부와 사법부가 이슬람주의 세력을 압도했다는 의미이다.

## 2. 50인 헌법위원회와 세속주의 강화

2012년 헌법 초안을 만들었던 100인 헌법위원회는 이슬람주의 세력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야권과 세속주의 국회의원들이 이슬람주의 세력 중심의 헌법위원회 참여를 거부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12년 헌법 제정은 이슬람주의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2013년 7월 3일 군부 쿠데타 직후 알 시시는 2012년 헌법을 잠정적으로 중지하고, 다양한 계층과 전문가가 포함된 헌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하며, 2012년 헌법을 제한적으로 수정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새로운 헌법을 공포하겠다고 말했다.<sup>12)</sup> 임시대통령으로 임명된 아들

11) <http://egyptelections.carnegieendowment.org/2012/12/14/islam-in-egypts-new-constitution>

12) <http://carnegieendowment.org/2014/05/05/grading-egypt-s-roadmap-toward-democracy/ha4c>; 하지만 이후 진행된 군부와 사법부 중심의 헌법 개정 작업은 알 시시의 7.3 로드맵 약속을 위반했으며, 군부쿠데타 정신에도 위배되었다. 2014년 헌법은 수정이 아니라 전면 개정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50인 헌법 개정위원회에 제1당인 FJP가 배제됨으로써 일부 세속주의 정치 세력만



리 만수르는 2013년 7월 8일 헌법선언 18조와 29조에 근거하여 2012년 헌법의 효력을 중지시켰으며, 이를 수정하기 위한 50인 헌법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18조에는 헌법위원회가 50인으로 구성될 것이며, 2012년 헌법을 수정할 것이고, 60일 이내에 최종 헌법 수정안을 임시대통령에게 제출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후 임시대통령은 최종 헌법 수정안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하고,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면 헌법 수정안은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29조에 의하면, 헌법위원회는 정치정당, 지식인, 노동자, 전문가 신디케이트, 국민의회 의원, 노동조합 소속, 아즈하르(순니파), 콥트교회, 군부, 경찰, 청년, 여성 등 사회의 다양한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며, 임시대통령은 각 집단에서 추천된 인물들 중 대중적인 인물을 최종적으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발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sup>13)</sup>

50인 헌법위원회에는 종교계 출신으로 아즈하르에서 3인과 콥트교인 3인이 포함되었으며, 사회운동 출신으로 타마르드 운동 1인을 포함한 40세 미만의 청년 4인과 2011년 1월 15일 민주혁명 활동가 출신 1인, 그리고 사회운동 전문가 1인이 포함되었다. 정치정당 출신으로는 이슬람주의 정당, 세속주의 정당, 사회주의 정당, 민족주의 정당 출신 각 1인이 포함되었다. 이외에도 문화계, 노동계, 전문가 집단, 농민 출신, 국기위원회, 기타 이익집단 출신 등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국회 제1당이었던 FJP의 대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2013년 50인 헌법위원회는 2012년 100인 헌법위원회가 주로 무슬림형제단과 FJP 출신으로 구성되었던 것과는 달리 비교적 다양한 사회집단을 대표하는 인물들로 구성되었으며, 이슬람주의자들의 숫자는 대폭 줄어든 반면 세속주의

의 잔치로 간주되었다. 또한 아들리 만수르가 소장을 맡았던 SCC의 최고 판사들은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질 때까지 임시대통령과 함께 이집트의 사법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SCC의 소장이었던 아들리 만수르는 헌법선언 발동의 권한도 부여받았다. 이는 2011년 아랍 스프링 이후 이집트는 헌법선언에 의해 정치가 이루어졌다는 것과 군부가 정치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들리 만수르는 헌법선언 뿐만 아니라 칙령도 발동하여 이집트 민주화에 악영향을 끼쳤다. 그는 경찰 보안 능력을 확대하여 시위를 강제 진압하는데 경찰을 동원하였으며, MB 등 이슬람주의자들을 테러집단 및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는데 경찰력을 활용하였다. 이는 엄연한 권력남용이었으며, 독재정치였다.

13) <http://english.ahram.org.eg/News/78590.aspx>



와 자유주의 그리고 민족주의 성향의 인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sup>14)</sup> 50인 헌법위원회의 대표적인 세속주의 성향 인물은 전 외무장관 겸 대통령 후보 아므르 무사(Amr Musa), 언론인협회 회장 겸 알 아흐람 정치전략연구소 소장 디아 라슈완(Diaa Rashwan), 변호사협회 회장 겸 아랍나세르정당 당수 사미흐 아슈르(Samih Ashur) 등이었으며, 자유주의 성향의 인물은 타마르루드 운동을 주도했던 마흐무드 바드르(Mahmud Badr)와 무함마드 압드 알 아지즈 (Muhammad Abd al-Aziz), 여성 정치인으로서 인권행동가였던 마날 알 타이비 (Manal al-Taybi) 등이었으며, 아므르 무사가 경쟁자 아슈르(16표)를 제치고 30 표를 획득하여 의장으로 당선되었다.<sup>15)</sup> 또한 헌법위원회는 부의장으로 여성 변호사이며 국가인권위원회 부의장 모나 줄 파카르(Muna Zul Fakar), 전 무슬림형제단 지도자 겸 저명 이슬람 사상가 카말 알 할바위(Kamal al-Halbawy), 세계적인 심장전문의 마그디 야으쿰(Magdi Ya'qub)를 선출하였으며, 카이로대학교 총장 가비르 나사르(Gabir Nassar)를 총 보고자로 선출하였고, 이집트 작가연맹 회장 무함마드 살마위(Muhammad Salmawy)를 공식대변인으로 선출하였다.<sup>16)</sup> 50인 헌법위원회의 구성을 성향별, 소속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sup>17)</sup>

구분	인원(명)	소속
종교(이슬람)	3	-알 아즈하르 이집트 그랜드 무프티, 그랜드 셰이크 고문, 샤리아 대학 교수
종교(기독교)	3	-탑타 시 콥트교 주교, 가톨릭 교회 기자 지구 주교, 이집트 프로테스탄트 공동체 의장
정당	8	-와프드당 대표, 사회민주당 대표, 살라피주의 누르당 부대표, 전 MB 지도자, 50인 헌법위원회 부의장, 사회주의 타감무오당 부대표, 나세르주의 카라마당 대표, 자유헌법당 대표, 이집트 사회민주당 공동대표

14) <http://english.ahram.org.eg/News/79983.aspx>

15) <http://english.ahram.org.eg/News/81074.aspx>

16) <http://english.ahram.org.eg/News/81094.aspx>

17) <http://english.ahram.org.eg/News/80519.aspx>

구분	인원(명)	소속
전문가 집단	7	-이집트 언론인협회 회장(아흐람 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이집트 작가연맹 회장, 50인 헌법위원회 공식 대변인, 변호사협회 회장(나세르당 대표, NSF 공동대표), 의사협회 회장, 기술자협회 카이로 지부 회장, 화가 대표, 영화 감독(나세르당 소속)
청년운동가	4	-타마르루드 운동 창설자(나세르주의 운동 소속), 타마르루드 운동 창설자, 6월 30일 전선 창설자 2명
노동자	2	-이집트 무역연맹연합 회장, 이집트 노동자 국가연합 회장
농민	2	-농부연합회 회장, 이집트 농부협동연맹 회장
학생	1	-이집트 대학생총연합 의장
NGO	1	-NGO 총연합회 회장
군부	1	-군사재판소 부소장
내각	1	-내무부 장관 보좌관, 법률문제 담당
일반인	8	-카이로 대학교 총장, 50인 헌법위원회 총 보고자, 전 외무장관(자유회의당 대표, NSF 공동대표), 50인 헌법위원회 의장, 마그디 야으프 심장재단 설립자(외과의사), 50인 헌법위원회 부의장, 아흐람 정치전략센터 아랍-유럽 단장(정치분석가), 아즈하르 대학교 법과대학교수(사회주의 학자), 카이로 대학교 문과대학 교수, 작가(누비 대표), 작가 겸 행동가(시나이 대표)
국가위원회	6	-국가인권위원회 부의장(변호사), 50인 헌법위원회 부의장, 국가여성위원회 의장, 최고문화위원회 의장(시인), 국가아동부모위원회(반인신매매 팀장), 최고대학위원회 의장(수에즈 운하 대학 총장), 국가특별구제위원회 의장
협회	3	-관광협회 회장, 산업협회 회장(산업부 고문), 무역협회 회장
합계	50	

50인 헌법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이슬람주의 세력과 친 무르시 지지자들은 2012년 헌법위원회와 달리 이슬람주의자들의 숫자가 대폭 줄어든 것에 대해 비난하였지만, 세속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민족주의 세력, 그리고 여성계는 크게 환영하였다.<sup>18)</sup> 7월 3일 쿠데타 직후 임시정부는 50인 헌법위원회 구성에서 다양한 계층과 집단들을 포함시키고 이집트의 화해를 이룩하겠다고 약속하

18) <http://english.ahram.org.eg/News/80639.aspx>



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회 제1당이었던 FJP의 대표가 누락되었으며, 이슬람주의자는 누르당 대표 한 명만 포함되어 있었다. 이슬람 종교 대표 3인은 모두 알 아즈하르 대학 소속의 보수주의자들이었다. 결국 임시정부는 이슬람주의자들을 철저히 배격하였으며, 세속주의 세력 위주로 헌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는 2012년 100인 헌법위원회는 이슬람주의자 위주로 구성되었지만 2014년 50인 헌법위원회는 철저하게 세속주의자 위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속주의자들로 구성되었던 50인 헌법위원회 의장 아므르 무사는 회의의 역할이 2012년 헌법에 대한 단순 수정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헌법의 제정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법률가 중심으로 구성된 10인 기술위원회가 헌법 초안을 마련할 것이며, 이는 2012년 헌법에 대한 수정헌법이 아니라 새로운 헌법이 될 것이고, 여기에는 민주주의, 정치적 다원주의, 종교적 다원주의, 권력 분산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sup>19)</sup> 하지만 헌법 초안을 작성할 10인 기술위원회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 위원회는 헌법 수정안 제출을 위한 자문기구이며, 전체 총회에서 투표권은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세속주의 법률가로 구성된 10인 기술위원회가 지나치게 군부와 밀착되어 있었고, 헌법 수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부여받았으며, 이로 인해 헌법 수정안이 지나치게 세속주의 또는 반 이슬람주의 성격을 띠고 친 군부 성격의 헌법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sup>20)</sup>

50인 헌법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구성, 헌법 수정 범주, 그리고 헌법 확정동의 비율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의장인 아므르 무사는 정부의 체제, 인권과 자유, 기본 구성요소, 국가 대화, 그리고 최종 헌법 작성 위원회 등 5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그는 내규를 통해 각 소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될 것이며, 매일 라운드테이블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이고, 각 소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업무를 완수할 것이며, 기술위원회와 소위원회가 준비한 초안은 전체 총회에서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확정될 것이고, 확정된 헌법 초안

19) <http://english.ahram.org.eg/News/81117.aspx>

20) <http://carnegieendowment.org/2013/09/20/egypt-s-daring-constitutional-gang-of-50/gny0>

은 완전히 새로운 헌법이 아니라 수정된 헌법이며, 6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sup>21)</sup>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수정 헌법에 대한 논의는 50인 헌법위원회에 설치된 10인 기초헌법 기술위원회에서 초안 작성 → 5개 소위원회에서 축조 심의 → 38개 항목 198개 조로 초안 확정 → 60일 이내에 헌법위원회에서 논의 → 전체 총회에서 75% 동의로 확정 → 대통령에게 60일 이내에 보고 → 30일 이내 국민투표 실시 → 헌법 발효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 3. 이슬람주의와 세속주의의 대립

50인 헌법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2012년 헌법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던 조항은 이슬람, 여성, 타 종교, 그리고 군부 관련 조항이었다. 2012년 헌법 중에서 이슬람주의와 세속주의 세력이 가장 첨예하게 의견 대립을 보였던 조항은 이슬람 관련 조항인 2조, 4조, 그리고 219조였다.<sup>22)</sup> 아즈하르 대학교 법학 교수 사야드 알 딘 알 힐랄리는 2조와 219조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219조는 이집트 사회에 이슬람의 엄격한 코드와 일종의 종교적

21) <http://english.ahram.org.eg/News/81197.aspx>

22) <http://english.ahram.org.eg/News/81649.aspx>; 헌법 2조 “이슬람의 이집트의 국교이고, 이슬람의 샤리아는 법률의 근원(원리원칙)이다.”는 1971년 헌법에 처음 도입되었다. 50인 헌법위원회의 일부 사회주의 세력들은 이슬람을 국가의 공식 종교로 인정하되 3대 유일신 종교의 정신들도 법률적 근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50인 헌법위원회의 대다수는 이슬람이 이집트의 국교라는 점에 대해서 인정하였으며, 이집트의 주요 정치 세력들과 콥트 교회도 2조에 대해 동의하였다. 하지만 2조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219조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다. 219조는 “이슬람 샤리아의 근본 원칙은 순니파 학자들이 언급한 샤리아에 대한 일반적 해석, 기본 법률 규정, 그리고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법률들을 포함한다.”로 명시하였다. 219조에 대한 비판자들은 이 조항이 비 순니파 소수파에 대한 차별을 공식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0인 기술위원회가 50인 헌법위원회에 219조의 폐지를 권고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살피주의 누르당 대표 유니스 마키운은 219조의 폐지가 이집트에서 이슬람의 정체성을 제거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2조에서 근원(원리원칙)이라는 용어만 삭제하면 219조의 폐지에 동의하겠다고 말했다. 누르당까지 219조의 폐지에 조건부로 동의하면서 세속주의와 자유주의 세력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던 50인 헌법위원회에서 219조의 폐지는 공식화되었다.



독단주의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 샤리아 자체에도 많은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2조가 이슬람 샤리아는 이집트 법률의 중요한 근거라고 언급한 것으로 충분하다. 이슬람 샤리아를 해석하는 문제는 1971년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최고헌법재판소에 넘겨야 한다. 신과 인간의 관계는 어느 인간의 개입도 허용하지 않는 직접적인 관계여야 한다. 어느 누구도 이슬람 샤리아의 종교적 구절들을 해석하기 위해 헌법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헌법에 의한 샤리아의 해석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불신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sup>23)</sup> 또한 그는 아즈하르 최고위원회가 샤리아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고 명시한 4조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아즈하르의 최고성직자회의로부터 이런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sup>24)</sup>

세속주의자들도 219조 문제를 제기하였다. 사회주의 정당인 타감무오(Tagammu)당의 지도자 후사인 압드 알 라지끄는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50인 헌법위원회에는) 대부분의 정치 세력들이 평등하고 공평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2012년 헌법위원회가 이슬람주의자들이나 무슬림형제단 추종자들로 구성되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타감무오당은 이슬람 샤리아에 대해 언급한 모든 조항들을 삭제하길 원한다. 이는 단지 219조에만 해당되지 않으며, 이집트의 가장 기본적인 법률적 근거가 샤리아라고 명시한 2조에도 해당된다. 1923년부터 1971년까지의 이집트 헌법들은 이슬람 샤리아에 대해 결코 언급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이슬람은 국가의 공식 종교라는 언급으로 충분했다. 안와르 사다트 전 대통령은 1971년 정권을 장악하고 전임자인 나세르의 흔적들을 지우기 위해 무슬림형제단과의 새로운 관계를 원했고 이런 과정에서 이집트 역사상 처음으로 이슬람 샤리아에 대한 조항을 추가했다. 이제 이집트는 과격한 종교 세력들을 양산하였던 사다트의 유산을 제거해야 한

23) <http://english.ahram.org.eg/News/80807.aspx>

24) <http://english.ahram.org.eg/News/81656.aspx>; 아즈하르 대학교 대표인 무함마드 압드 알 살람은 아즈하르는 이집트를 종교국가로 전환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는 점과 이전의 일부 이맘들이 이슬람의 이미지를 심하게 왜곡하였다는 점, 그리고 이슬람은 종교국가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 219조는 중세 이슬람 해석 방식을 강요하고 있으며, 일부 이슬람주의 세력들은 자신들의 방식대로 이슬람을 해석하고 있고, 각자는 자신들만 가장 올바른 세력이라고 간주하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에 대해서는 불신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sup>25)</sup>

한편 50인 헌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살라피주의 누르당의 대변인 야세르 알 부르하미(Yasser al-Burhami)는 헌법위원회가 이슬람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려 한다는 점을 비난하였다. 그는 10인 헌법수정 기술위원회가 2012년 헌법의 4조와 81조를 삭제하려 한다는 점을 비난하였는데, 4조에는 이집트 최고 이슬람기구인 알 아즈하르의 최고학자위원회가 입법 진행과정에서 샤리아에 관련된 모든 내용에 대해 조언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고, 81조에는 샤리아 법과 아즈하르의 법률 해석 권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헌법의 주요 내용과 충돌하지 않는 한 자유가 존재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다.<sup>26)</sup> 하지만 그는 50인 헌법위원회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으며, 알 시시도 부정하지 않았다. 이는 그가 알 시시 정부에서 이전의 MB 역할을 대신하며 이슬람주의의 대체 세력으로 등장하길 원했으며, 이집트의 이슬람주의 운동을 주도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국가여성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Women: NCW) 의장 마르바트 알 탈라위는 정치와 종교를 연계시키는 집단이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위협하기 위해 종교에 의지하는 집단을 증오하고 친 이슬람주의 성향의 정당을 이집트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종교 정당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219조가 서로 다른 종교 집단 간 갈등과 폭력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녀는 2012년 헌법의 11조가 여성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 2012년 헌법의 여러 조항들은 개인의 권리가 이슬람 샤리아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점, 종교와 샤리아라는 굴레로 여성의 자유를 억누르기 위한 정치적 조항들이 추가되었다

25) Ibid.

26) <http://english.ahram.org.eg/News/82208.aspx>



는 점 등을 비판하였다.<sup>27)</sup> 50인 헌법위원회의 기본 원리원칙 소위원회는 NCW 의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헌법 수정안에 모든 영역에서의 남녀평등 보장 조항, 선출직에서 여성의 공정한 대표성 보장 조항,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 하는 조항, 차별 없는 시민권 보장 조항,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권한 보장 조항 등을 포함시켰다.<sup>28)</sup>

이집트 콥트교 주교 타와드로스(Tawadras) 2세는 2012년 헌법 3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조항은 이집트의 기독교인과 유대교인들의 지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3조는 “이집트 기독교인들과 유대교인들의 교회법 원리원칙은 이들의 개인적 지위, 종교적 문제, 그리고 정신적 지도자의 선택에서 법률적 근거가 된다.”고 명시하였다. 이에 대해 주교는 ‘이집트 기독교인들과 유대교인들이’ ‘비 무슬림들’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2012년 헌법 3조는 이집트 시아파와 바하이파 등 소수 종교집단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29)</sup>

군부 관련 문제도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예산의 편성과 결산 내용이 결코 공개되지 않았던 군부의 지위에 대한 문제와 민간인의 군사재판 회부 문제는 심각한 논란을 야기하였다.<sup>30)</sup> “민간인의 군사재판 반대”(No to Military Trials for Civilians) 모임의 설립자이자 인권변호사인 라지아 오므란(Ragia Umran)은 2012년 헌법 198조의 수정을 촉구하였다. 오므란은 198조 “민간인은 군대를 직접적으로 공격한 경우를 제외하고 군사재판에 회부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 어떤 경우라도 민간인의 군사재판 회부는 금지되어야 하며 군인들에 의해 자행되는 범죄로만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31)</sup> 강한 이집트당(Strong Egypt Party)의 당수 압드 알 무나임 아부 알 푸투흐(Abd al-Munaym Abu al-Futuh)도 신헌법에는 2011년 1월의 혁명 정신 및 합법성, 군

27) <http://english.ahram.org.eg/News/81656.aspx>

28) <http://english.ahram.org.eg/News/81939.aspx>

29) <http://english.ahram.org.eg/News/81463.aspx>

30) <http://english.ahram.org.eg/News/82242.aspx>

31) <http://english.ahram.org.eg/News/82298.aspx>



부의 정치 불개입과 중립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sup>3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의 군사재판 문제를 다루고 있는 2014년 헌법 174조는 민간인의 군사재판 회부를 완전히 금지하지 않았으며, 군인이나 군부의 재산이 민간인에 의해 공격을 받은 경우 여전히 군사재판의 대상이라고 명시하였다.<sup>33)</sup>

2012년 헌법 219조는 이집트 내 집단 간 갈등과 투쟁을 유발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간주되었으며, 2014년 50인 헌법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수정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이슬람 관련 조항들에 대한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50인 헌법위원회 내부에서도 이슬람주의자들과 세속주의자들 간 논란이 확산되자,<sup>34)</sup> 헌법위원회는 헌법 수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전체 위원 75%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하지만 50인 헌법위원회에서 범 이슬람주의자로 분류할 수 있는 위원의 수가 6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헌법 수정안은 세속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세력의 의지대로 확정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50인 헌법위원회는 세속주의 세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슬람주의 세력의 의견은 지극히 소수의견에 불과했고, 거의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4. 군부와 사법부의 정치권력 장악

10인 기초헌법 기술위원회와 50인 헌법위원회의 헌법 수정안은 군부와 사법부의 합작품이었다. 군부쿠데타의 주역 알 시시와 임시 대통령 아들리 만수르는 각각 이집트 군부와 사법부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50인 헌법위원회의 2014년 헌법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하자 헌법위원회에서 철저히 배격되었던 이

32) <http://english.ahram.org.eg/News/81171.aspx>

33) <http://english.ahram.org.eg/News/82422.aspx>

34) <http://english.ahram.org.eg/News/80678.aspx>; 살라피스트 누르당은 무르시 지지에서 무르시 반대로 선회한 후 2013년 6월 30일 타마르루드 운동에 가담하였으며, 50인 헌법위원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사회주의 학자 겸 정치분석가였던 사이드 알 딘 이브라힘은 누르당의 입장 변화는 무르시와 무슬림형제단 이후 이집트의 이슬람주의 정치를 대변할 주요 세력으로 등장하기 위한 전략적 이동일 뿐이라고 말했다.



슬람주의자들과 일부 세속주의 세력은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였다.

아들리 만수르 이집트 임시정부는 2014년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끝나고 이슬람세력들의 반정부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중요한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 그것은 기존의 관례를 무시하고 국회의원 선거보다 대통령 선거를 먼저 실시하겠다는 칙령의 발표였다.<sup>35)</sup> 임시대통령 아들리 만수르는 군부와 친 정부 단체의 대표자들과 논의를 거친 후 이런 칙령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발표는 군부 쿠데타 직후 발표되었던 성명이나 군부 지원을 받고 있는 임시정부가 구상했던 원래 정치 일정과는 다른 것이었으며, 전통적 관례인 헌법 개정 → 국회의원 선거 실시 → 대통령 선거 실시의 일정과 관행을 깬 것이었다. 임시정부의 대통령 선거 일정 조정은 군부 실세인 압드 알 파타흐 알 시시 장군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추측을 더욱 강하게 암시하였으며, 여전히 조직력을 가지고 있었던 MB 세력을 배제한 가운데 대통령 선거를 치르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대통령 선거 일정 조정이 발표된 후 이집트 내에서는 알 시시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대두되었다. 그의 지지자들은 그가 이집트의 정치와 경제를 안정시킬 강력한 카리스마의 지도자라고 평가한 반면, 반대자들은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지나치게 강력한 군부 통치력을 발휘할 것이며 향후 이집트 정치를 완벽하게 통제하여 무바라크 시기와 같은 군부의 정치 장악과 정치적 불안이 더욱 가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이유로 2013년 7월 3일 군부 쿠데타 이후 결성된 반 쿠데타 연합은 2011년 1월 25일부터 2월 11일까지 18일 동안 시위를 벌여 무바라크 군부정권을 축출한 것과 같이 18일간의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였다. 하지만 임시정부는 군부와 사법부를 동원하여 MB가 주도하였던 반 쿠데타 연합을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탄압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MB에 대한 대대적 탄압이 지속되자 이집트에서는 새로운 분위기가 감지되었다. 일부 언론인들과 세속주의 행동가들은 임시정부의 MB에 대한 탄압을 무바라크 시기의 안보정치 및 공포분위기 조성 과 비유하면서 이런 조치가 군부

35) <http://www.bbc.uk/news/world-middle-east-25904575>(2014년 1월 27일 검색)

에 대한 적대감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인권단체인 암네스티(Amnesty)와 HRW는 이집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상황을 전례 없는 규모의 억압, 탄압, 폭력이라고 말하면서, 군부의 권력 남용은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sup>36)</sup>

군부의 요청대로 SCC 의장 출신인 아들리 만수르는 기존의 관례를 무시하고 국회의원 선거보다 앞서 이집트 대통령 선거를 2014년 5월 28~29일 양일간 실시하였다. 이 선거에서 알 시시 후보는 46% 투표율에 93% 득표율이라는 압도적 승리를 쟁취하였다. 하지만 투표율 46%는 알 시시 진영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수치였다. MB를 비롯한 이슬람주의 세력과 일부 자유주의와 세속주의 단체들은 대통령 선거를 보이콧하였다. 왜냐하면 알 시시는 MB의 이슬람운동을 탄압하였고, 이슬람정당인 자유정의당을 폐쇄하여 MB 소속 대통령 후보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1400명 이상의 MB 소속 단원들을 강경진압으로 사망케 하였고, 16,000명 이상의 이슬람주의자들을 구금한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를 진행하였기 때문이다.<sup>37)</sup> 알 시시는 2014년 헌법 개정의 덕택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왜냐하면 2014년 헌법은 종교 정당을 금지하였으며, MB를 테러집단으로 규정하여 정치참여를 금지시켰고, 결국 이집트 정치권력구조 상 가장 강력한 집단들 중 하나인 이슬람주의 세력을 무력화 시킨 후 대통령 선거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는 양상이 다를 수 있다. 이집트 내에서 강력한 결집력을 가지고 있는 MB 집단이 알 시시의 억압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알 시시는 선불리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할 수 없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2014년 헌법 개정은 국회의원 선거 일정을 명시하지 않은 채 대통령 선거 일정을 공표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2014년 헌법의 개정으로 이집트 정치권력구조에 영향을 끼친 요소들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었다고 말할 수 있다.

36) <http://www.bbc.com/news/world-middle-east-28746899>

37) <http://www.bbc.com/news/world-middle-east-27614776>



구분	2012년 헌법(이슬람주의)	2014년 헌법(세속주의)
이슬람	강화됨	약화됨
샤리아	매우 강화됨	매우 약화됨
알 아즈하르	매우 강화됨	약화됨
종교적 소수 집단	강화됨	강화됨
국방장관 임명	대통령	SCAF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
군부예산	친 군부	군부 의견 강하게 수렴
사법부	친 사법부	사법부 의견 강하게 수렴
SCC	친 SCC	SCC 의견 강하게 수렴
정치정당	다당제, 종교정당 허용	종교정당 불허

#### IV. 2014년 헌법과 힘의 균형: 이슬람주의의 패배

##### 1. 2014년 헌법과 이슬람주의의 약화

2014년 이집트 헌법 수정 내용 중 이슬람관련 조항에 대한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12년 헌법	2014년 헌법	비교분석
샤리아와 이슬람 원칙	-2조: 이슬람은 국가 종교이고, 아랍어는 공식 언어이다. 이슬람법 샤리아의 원칙들은 법률의 근원이다.	-2조: 이슬람은 국가 종교이고, 아랍어는 공식 언어이다. 이슬람법 샤리아의 원칙들은 법률의 근원이다.	-샤리아 원칙 재천명
	-219조: 이슬람 샤리아의 기본 원칙은 일반 총론(adilla kulliya), 기본법 규정(qawa'id usuli), 실정법 규정(qawa'id fiqhiyya), 그리고 순니 이슬람과 대다수 무슬림학자들의 교리해석에 의해 인정된 전통적 원칙들을 포함한다.	-삭제(언급 없음)	-샤리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삭제 -일반 총론(adilla kulliya), 기본법 규정(qawa'id usuli), 실정법 규정(qawa'id fiqhiyya), 그리고 순니 이슬람과 대다수 무슬림학자들의 교리해석 차단

구분	2012년 헌법	2014년 헌법	비교분석
소수 종교집단	-3조: 이집트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의 종교법의 원리 원칙들은 개인 지위법, 종교 문제, 그리고 정신적 지도자의 선택에 대한 주요 법 근원이 된다.	-3조: 이집트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의 종교법의 원리 원칙들은 개인의 지위, 종교문제, 그리고 정신적 지도자의 선택 등을 규정하는 주요 법 근원이 된다.	-기독교인과 유대교인의 법률적 원리 원칙 수용 -이슬람 내 소수 종파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함
종교의 자유	-43조: 믿음의 자유는 불가침의 권리이다. 국가는 법률이 규정한 바와 같이 종교 의식을 수행하고 종교를 숭배하는 장소를 설립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한다.	-64조: 믿음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다. 계시된 종교의 추종자의 종교 의식 수행과 숭배 장소 설립의 자유는 법률에 의해 명시된 권리이다.	-믿음의 자유를 절대적 자유로 인정 -계시종교의 권리와 자유를 법률로 인정
알 아즈하르	-4조: 알 아즈하르는 내부 문제에 대해 독립적인 자율성을 가지는 독립적 이슬람기구이며, 이집트와 전 세계에서의 이슬람 선교와 신학과 아랍어 교육에 책임을 가지고 있다. 알 아즈하르의 최고 학자들은 이슬람법에 내포된 문제들에 대해 자문을 수행한다. 알 아즈하르의 최고 성직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며, 면직될 수 없다. 최고 성직자 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알 아즈하르의 최고 성직자를 임명하는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알 아즈하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기금을 보장한다. 이상의 내용은 법규에 따른다.	-7조: 알 아즈하르는 내부 문제에 대해 독립적 권한을 가지는 독립적 이슬람 기구이다. 알 아즈하르는 종교학과 이슬람관련 사항에 대해 중요한 권한을 가지는 기구이다. 알 아즈하르는 이집트와 전 세계에서 이슬람을 선교하고, 종교학을 전파하며, 아랍어를 보급하는 책임을 가진다. 국가는 알 아즈하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재정적 몫을 지원한다. 알 아즈하르의 최고 성직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며, 면직될 수 없다. 최고 성직자 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알 아즈하르 최고 성직자를 임명하는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아즈하르 역할 축소 -아즈하르의 샤리아에 대한 자문역할 폐지 -최고 성직자의 임명에 대한 정부의 개입 가능성 -아즈하르의 보수화 -아즈하르 학자들에 대한 정부 통제 강화
종교정당 불허	-6조: 정치 체계는 민주주의 원칙과 슈라(자문), 시민권 (모든 시민은 권리와 의무에서 동등하다.), 다당제 다원주의, 평화적 정권 교체,	-74조: 시민은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통지만으로 정치 정당을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종교나 성, 인종, 분파 그리고 지리적 위치에 근	-종교 표방 정치 정당 설립 및 정치 행위 금지 -사법부의 정당 통제 정당화

구분	2012년 헌법	2014년 헌법	비교분석
	권력의 분산과 균형, 법규, 그리고 인권과 자유에 대한 존중에 근거한다. 이런 사항들은 헌법에 세부적으로 명시된다. 성과 인종 그리고 종교에 근거한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정치 정당의 설립은 금지된다.	거한 차별에 근거한 정치 정당의 설립이나 정치 행위 실행은 금지된다. 또한 민주주의, 비밀주의에 반하는 정치 행위의 실행이나 군사적 또는 준군사적 성격을 지닌 정치 행위는 금지된다. 정당은 오직 사법적 명령에 의해서만 해산된다.	-다당제 다원주의, 평화적 정권교체, 권력 분산과 균형, 인권과 자유에 대한 존중 등에 대한 내용 삭제 -이슬람 정당 불허

2012년 헌법의 이슬람주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을 때, 2014년 헌법은 2012년 헌법 219조의 삭제와 7조의 아즈하르 기능 축소, 그리고 74조 종교정당 금지 등 이슬람관련 대부분의 조항들을 크게 약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알 시시와 그의 지지 세력들이 탈 이슬람주의를 표방하며 이슬람세력의 정치력과 결집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 헌법의 내용 중 이슬람법인 샤리아에 관한 확대 해석 및 해석권한 논란에서 비롯된 2014년 헌법은 이슬람 샤리아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삭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교를 표방하는 정치정당의 설립도 금지하는 등 MB와 이슬람세력을 철저히 통제하고 금지하는 정책을 추구하였다. 그 결과 MB는 알 시시 정권에 의해 테러 단체로 규정되었으며, MB 소속 민간인들은 테러리스트로 간주되었고, MB가 주도했던 정당인 FJP와 사회봉사단체들은 모두 해산되었다. 결국 이슬람의 논리를 강화하여 이슬람 세력과 군부+사법부 세력의 균형을 유지하려던 MB와 무르시의 정책은 실패하였으며, 1971년과 2012년 헌법 개정에서와 마찬가지로 2014년 헌법에서도 군부와 사법부 중심의 세속주의 세력이 이슬람주의 세력을 완전히 압도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알 시시 정부가 MB와 이슬람주의자들을 철저히 억압하고 탄압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 2. 2014년 헌법과 세속주의의 강화

구분	2012년 헌법	2014년 헌법	비교분석
군부 예산	<p>-197조: 국가국방위원회(NDC)가 창설되며,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국회의장, 슈라위원회 의장, 총리, 국방장관, 외무장관, 재무장관, 내무장관, 정보부장, 군총사령관, 해군사령관, 공군사령관, 군작전사령관, 군정보부장이 위원이 된다.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옵서버로 참여시킨다. 위원회는 국가의 안녕과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과 관련된 문제와 군부의 예산에 관한 사항들을 다룬다. 위원회는 군부와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다. 이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p>	<p>-203조: 국가국방위원회가 설립되며,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총리, 국회의장, 국방장관, 외무장관, 재무장관, 내무장관, 정보부장, 군총사령관, 해군사령관, 공군사령관, 군작전사령관, 군정보부장이 위원이 된다. 위원회는 국가의 안녕과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과 관련된 문제와 국가 예산에 단독으로 편성되어 있는 군부의 예산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위원회는 군부의 법률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한다. 이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위원회가 군부의 예산을 다룰 때는 군부 재정 담당 부서의 장, 국회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 국회 국가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한다.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옵서버로 참여시킨다.</p>	<p>-국방장관은 최고군사위원회(SCAF)의 동의를 얻어 임명 -2번의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 적용 -군부예산 편성위원회 구성 시 군부 재정 담당관 참여 -군부가 군부예산 편성 및 감시</p>
군사 재판	<p>-198조: 군부의 사법제도는 군대, 군인, 군속에 관련된 모든 범죄를 독자적으로 재판하는 독립권을 가진다. 민간인은 군대에 해를 끼치는 범죄를 제외하고 군사법정에 회부되지 않는다. 법률은 범죄의 범주와 군사법정에서 다루어질 사항들을 명기한다. 군 사법부의 위원들은 독립권을 가지며, 면직될 수 없다. 이들은 면책특권, 안전 보장권, 다른 사법부 위원들에게 명시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p>	<p>-204조: 군부의 사법제도는 군대, 군인, 군속,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모든 범죄들과 정보부 요원들이 업무 도중 또는 업무 때문에 저지른 모든 범죄들을 독자적으로 재판하는 독립권을 가진다. 민간인은 군대 시설, 군부대, 군이 관리하는 지역 내의 모든 것, 군부대나 국경 지역으로 명시된 영역 내의 시설, 장비, 문서, 군사기밀, 공공자산 및 군부대 공장에 대한 범죄, 군 징집과 관련된 범죄, 업무를 수행 중인 군 장교나 군속에 대한 범죄 등에 대한 직접 공격을 제외하고 군사법정에 회부되지 않는다.(생략)</p>	<p>-MB소속 민간인의 군사재판 정당성 인정 -2012년에 비해 민간인의 군사 재판 대상 확대</p>

구분	2012년 헌법	2014년 헌법	비교분석
집회의 자유	<p>-50조: 시민은 비무장이고 법이 정한 신고 절차를 거친 대중 모임, 행진, 평화적 시위를 개최할 권리를 가진다. 개인적 집회의 권리는 사전 통지의 필요 없이 보장되어 진다. 보안 요원은 개인적 모임에 참석할 수도 없고 모임을 차단할 수도 없다.</p> <p>-51조: 시민은 오직 신고만으로 결사체나 시민 단체를 단체들은 자유롭게 운영되고, 법인체로 간주된다. 정부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법원의 명령이 없는 한 이 단체들이나 행정적 조직체를 해산할 수 없다.</p>	<p>-73조: 시민은 어떤 형태의 무기도 소지하지 않는 한 법률이 정한 통지만으로 대중 모임, 행진, 시위, 모든 형태의 평화적 항의를 조직할 권한을 가진다. 평화적이고 개인적인 모임을 개최할 권리는 사전 통지를 할 필요 없이 보장된다. 보안 요원은 이런 모임들에 참여하거나 추적하거나 도청할 수 없다.</p> <p>-75조: 시민은 민주주의 기본에 근거하여 비정부 기구나 단체를 구성할 권리를 가진다. 이 기구들은 통지만으로 법인체 성격을 확보한다. 이들의 자유 활동은 허용된다. 행정 기관은 사법적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런 조직들의 문제에 개입할 수 없으며, 조직들과 이사회 그리고 신탁통치 이사회를 해산할 수도 없다.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구조나 행위가 비밀스럽게 진행되거나 군사나 준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비정부기구나 단체의 설립과 유지는 금지된다.</p>	<p>-집회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슬람관련 집회 철저히 봉쇄</p> <p>-이슬람관련 결사체나 시민단체의 설립 금지</p>
사상과 표현의 자유	<p>-45조: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개인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말로, 글로, 그림으로, 그리고 어떤 형태의 출판과 표현 방식으로 의견을 표현할 권리도 가진다.</p> <p>-31조: 존엄성은 모든 개인의 권리이며, 국가가 보호한다. 개인에 대한 모욕이나 경멸은 금지된다.</p> <p>-44조: 모든 종교 메신저나 예언자들에 대한 모욕이나 남용은 금지된다.</p>	<p>-65조: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모든 개인은 말, 글, 이미지, 그리고 다른 표현과 출판 수단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p>	<p>-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봉쇄</p> <p>-2012년 모든 종교의 예언자 및 메신저에 대한 모욕과 남용 금지 조항 삭제</p>



구분	2012년 헌법	2014년 헌법	비교분석
최고 헌법 재판소 (SCC)	-176조: 최고헌법재판소는 소장과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을 추천할 사법 기관과 기타 기관은 법률로 정하며, 임명 방법과 자격 요건도 법으로 규정한다. 임명은 대통령의 칙령으로 이루어진다.	-193조: 최고헌법재판소는 소장과 일정수의 소장 대리인들로 구성된다. 최고헌법재판소의 최고위원회는 소장과 일정수의 기관장, 고문, 부 고문들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총회는 3명의 헌법재판소 최고위 부소장들 중 한 명을 소장으로 선출한다. 또한 총회는 부소장들과 최고위원회 위원들을 선출하며, 이들의 임명은 대통령 칙령으로 정한다. 위에 언급된 과정들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SCC의 숫자를 대폭 확대하였음 -최고위원회를 구성하여 세속주의 세력의 영향력을 강화하였음 -위원회의 총회를 구성하여 부소장과 최고위원회 위원 선출 권한을 부여하였음

2012년 헌법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을 때, 2014년 헌법을 통해 세속주의 세력을 대표하는 군부와 사법부의 권한은 대폭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MB와 무르시 정권은 군부예산의 통제와 감시를 통해 군부 통치자와 종교권의 힘의 균형, 이슬람주의와 세속주의의 힘의 균형, 그리고 지나친 군부와 사법부의 권한 축소를 통한 국가권력의 수평적 균형을 추구하였다. 하지만 2012년 군부와 사법부 관련 헌법 조항 개정 작업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MB와 군부의 갈등관계 및 MB와 사법부의 갈등관계는 결국 군부예산 관련 헌법조항에 대한 군부의 입김 강화와 SCC 관련 조항에 대한 사법부의 입김 강화로 귀결되었다. 이는 2012년 헌법 개정 작업에서 100인 헌법위원회를 이슬람주의 세력 중심으로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주의 세력이 세속주의 세력을 압도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2014년 헌법은 군부예산 편성 위원회 구성 시 군부 재정 담당관의 참여를 명시하였으며, 군부가 군부예산을 감시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군사재판 관련 조항에서도 MB소속 민간인의 군사재판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2012년에 비해 민간인의 군사재판 대상을 오히려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군부의 힘이 2012년보다 더 강화되었으며, 군부의 세속화와 장기집권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2014년 헌법은 SCC의 숫자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SCC 내에 최고위원회와 총회를 구성하였고, 총회에 부소장과 최고위원회 위원의 선출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는 사법부의 힘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결국 세속주의 세력의 영향력을 강화하였음을 의미한다.

### 3. 이슬람주의와 세속주의의 힘의 불균형

2014년 헌법 개정으로 이집트 내 이슬람주의와 세속주의의 힘의 균형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힘의 균형이 파괴된 흔적은 이슬람관련 조항, 군부관련 조항, 사법부관련 조항,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관련 조항에서 목격되었다.

이집트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2014년 헌법 243조는 “국가는 법률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본 헌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첫 번째 국회의원 선거에서 농부와 노동자들에게 일정 비율의 대표성을 부여한다.”고만 명시하면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2012년 헌법 229조가 “첫 번째 국회의원 선거 일정은 본 헌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일 이내에 시작되며, 첫 번째 입법 업무는 선거의 최종 결과가 발표된 후 10일 이내에 시작된다. 국회의원 중 농부와 노동자의 비율은 최소 50%에 이른다. 노동자는 타인에 의해서 임금이나 봉급을 받고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농부는 의원에 지명되기 전 최소 10년 동안 농업에 전문적으로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농부나 노동자 신분의 후보자로 지명되기 위한 기준과 규칙은 법으로 정한다.”라고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한 것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결국 알 시시가 주도한 2014년 헌법은 국회의원 선거보다는 대통령 선거를 먼저 실시하고, 국회의원 선거는 MB 축출 계획이 모두 마무리된 후에 실시하겠다는 의도로 수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 이집트 헌법 개정에 의거하여, 알 시시는 2014년 5월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sup>38)</sup>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알 시시는 진지하고, 정직하며, 열심

38) <http://www.bbc.com/news/world-middle-east-27614776> (2014년 5월 31일)

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모습과 종교생활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모습, 그리고 경제문제를 즉각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였다.<sup>39)</sup> 대통령에 당선 된 후 그는 다양한 정치·경제적 견해를 표명하면서 이집트가 국내에서 안정을 되찾고 아랍중동국가와 서구로부터 정치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인물로 거듭 나기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그는 정치적 문제에서 탐다운(일방적 상부 지시) 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긴급한 경제적 현안에 대해서는 원론적 이야기만 되풀이할 뿐 구체적 대안을 전혀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알 시시는 장관들에게 아침 7시까지 출근할 것과 대중들에게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출근할 것을 권유하며 이집트 에너지를 절약하고 석유 수입량을 줄이는데 기여하자는 캠페인을 추진하였다. 또한 그는 이집트 경제의 회복을 위해 자신의 봉급의 절반과 재산의 절반을 기부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고위 공직자와 기업인들에게도 이를 강요하였다. 국방장관은 군부가 14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군부가 이 금액을 기부하기 위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이 돈의 출처는 어디냐는 것이었다. 또한 그는 재정부에 최고임금제를 제한하는 법령을 공포하라고 지시하였다.<sup>40)</sup>

알 시시는 MB와 FJP의 폐쇄, 그리고 무르시 대통령에 대한 축출로 어수선해진 민심을 추스르기 위해 이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선거 기간 동안 행한 이슬람에 대한 자신의 공약을 지키려는 태도를 취했다. 그는 선거 기간 동안 이집트 내에서 실행되고 있는 종교 규범과 설교를 수정하고 바로잡아 이슬람 극단주의를 추방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MB와 이슬람주의자들을 겨냥한 종교선전이었다. 그는 전임 임시대통령 아들리 만수르가 제정한 정칙과 청렴을 강조하는 법률을 지지하였다. 이집트 청소년체육부는 청소년들의 무신론적

39) 알 시시는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기 전 무르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무슬림형제단을 억압하고 탄압하여 1,400명 이상의 사망자와 16,000명 이상의 구금자가 발생하였다. 더욱이 대통령 선거에서 무슬림형제단의 후보 등록은 금지되었다. 이로 인해 무슬림형제단을 비롯하여 자유주의와 세속주의 진영은 대통령 선거를 거부하였다.

40) <http://www.bbc.com/news/world-middle-east-28126198> (2014년 8월 13일)



경향을 일소하겠다고 선언하였다. 한편 내무부는 자동차에 종교적 구호를 붙이고 다니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며, 성추행과 성폭력 문제를 다룰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sup>41)</sup>

정치 문제에서 이집트는 대통령 알 시시의 민주주의 방식 적용에 대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탑다운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알 시시가 국내 정치 문제에서 국민 개개인의 선택보다는 군부의 기득권 유지와 강력한 통제, 그리고 일사불란한 질서를 선호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종교를 표방하는 정치정당의 후보자보다는 무소속 후보자를 선호하여 결집력이 약한 국회, 힘이 분산된 국회, 그리고 군부의 개입 여지가 많은 국회를 구성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는 칙령으로 최고법제도개혁위원회(Supreme Council for Legislative Reform)를 설립하였으며, 여기에서 새로운 법률 초안을 작성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국회를 허수아비 기구로 만들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sup>42)</sup>

종교 문제에서 대통령 알 시시는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는 알 아즈하르 대학교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설교사에게만 설교를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며, 아즈하르 대학을 포함하여 이집트의 대학교 총장과 학장들을 자신이 직접 임명할 계획이다. 그는 약 천 명의 무슬림형제단 단원들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재판을 주도하였으며, MB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강력한 결집력을 가지고 있는 MB를 억압하여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다.

경제 문제는 알 시시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그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sup>43)</sup> 현재 이집트인들의 약 25% 이상이 최저 생활 이하의 빈곤층에 속하는

41) 알 시시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식이 진행되었던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에서 성적 추행을 당한 후 치료를 받고 있는 한 여성의 병원을 방문하여 성적 추행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국방방관 시절 시위를 하는 여성들에 대한 처녀성 테스트 시행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었다.

42) Marina Ottaway, Egyptians uncertain about future under President Sisi, BBC News, 2014. 7. 2.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집트의 경제계는 알 시시의 분명한 신호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가 제시하고 있는 경제 부양 정책은 구호에 그치고 있을 뿐 알맹이가 없었다. 2013년 7월 이집트 군부의 무르시 전복 직후 이집트 경제 회복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퍼부었던 사우디, UAE, 그리고 쿠웨이트는 이집트 알 시시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한 구체적 개혁 조치나 분명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그는 경제 접근 방식에서 매우 혼란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철저히 군부 기득권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한편으로 민간부분과 사적 영역에 대한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공적 영역과 군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는 UAE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주택조성사업을 이미 군부에 위탁하였다.<sup>44)</sup>

이러한 알 시시 정부의 정책 결정과 태도는 이집트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량 개혁과 에너지 보조금 지원 등 서민정책에도 큰 차질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현재 이집트 정부는 주기적으로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정책은 거의 없으며,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국내 정치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또 다른 대규모 소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다.

결국 이집트의 힘의 균형은 2012년 헌법과 무르시 대통령 시절에는 이슬람주의를 대표하는 MB 세력과 세속주의를 대표하는 군부와 사법부의 대립 양상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2013년 군부 쿠데타와 2014년 헌법 개정 그리고 알 시시의 대통령 당선 이후 세속주의 세력인 군부와 사법부가 이집트 정치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1971년 헌법이 제정된 이후 이집트 이슬람주의 세력은 세속주의 세력을 단 한 번도 압도한 적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며, 이집트 정치권력에서 군부는 항상 그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도 사

---

43) Ibid.

44) Ibid.



실이다.

결론적으로 2014년 헌법의 개정과 알 시시의 대통령 당선으로 이집트의 힘의 균형 논리는 세속주의의 승리로 귀결되었는데, 이에 영향을 끼친 요소들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2012년 헌법(이슬람주의)	2014년 헌법(세속주의)
이슬람	매우 증가	매우 감소
샤리아	매우 증가	대폭 감소
알 아즈하르	매우 증가	매우 감소
MB	매우 증가	대폭 감소
군부	약간 증가	대폭 증가
사법부	약간 증가	대폭 증가
시민사회	증가	감소

## V. 결론

2014년 1월 14~15일 투표로 통과된 이집트 신헌법은 13개월 만에 새롭게 수정된 헌법이었다. 2012년 12월에 통과된 이집트 헌법은 무르시 대통령 시기에 1971년 헌법을 수정한 것이었는데, 그 생명력은 불과 1년 정도였다. 2012년 헌법과 2014년 헌법은 모두 1971년 헌법을 기본으로 수정되었는데, 일부 조항은 상호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다른 일부는 서로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었다.<sup>45)</sup>

종교적 측면에서 2014년 헌법은 알 아즈하르의 역할, 종교에 대한 모독, 이슬람법의 역할, 그리고 종교 정당 등에서 상당한 변화를 추구하였다.

45) Gregg Carlstrom, What's in Egypt's proposed new constitution?, 2014. 1. 14; <http://www.aljazeera.com/news/middleeast/2014/01/what-egypt-proposed-new-constitution-201411312385987166.html>

첫째, 알 아즈하르의 역할이 축소되었다. 2012년 헌법은 알 아즈하르에 법률적 역할을 부여하였다. 2012년 헌법은 순니파에서 가장 권위적인 신학기관인 알 아즈하르에게 이슬람법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한 조언과 협의의 권한을 부여하였다. 하지만 2014년 헌법은 이런 역할을 모두 폐지하였다.

둘째, 2012년 헌법은 예언자나 사도들을 모독하는 행위를 범죄행위로 간주하였으나, 2014년 헌법은 이를 삭제하였다.

셋째, 2012년 헌법과 2014년 헌법은 모두 이슬람법(샤리아)의 원리원칙을 법률의 기본적인 원천으로 간주하였으나, 2014년 헌법은 샤리아의 원리원칙을 명시한 내용들을 삭제하였다.

넷째, 2012년 헌법은 종교를 기본으로 하는 정치정당을 허용하였으나, 2014년 헌법은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정당의 설립을 금지하였다.

정치적 측면에서 2014년 헌법은 정치제도, 국방장관의 임명, 국회의원 구성, 경찰위원회, 슈라위원회, 검찰총장의 임명 등에서 많은 변화를 추구하였다.

첫째, 2014년 헌법은 의회에 부여했던 대통령 불신임 권한을 폐지하였으며, 의원 2/3의 찬성에 의한 조기 선거권을 인정하였다. 또한 국방장관, 외무장관, 내무장관, 법무장관에 대한 임명권을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부여하였다.

둘째, 2012년과 2014년 헌법은 국방장관을 군부에서 임명하는 것에 대해 명시하였지만, 2014년 헌법은 국방장관의 임명에서 최고군사위원회(SCAF)의 동의를 요구하였다. 아울러 헌법은 이 조항의 유효기간을 두 명의 대통령 임기 기간, 즉 8년으로 한정하였다.

셋째, 2012년 헌법은 국회의원 구성 비율에서 농부와 노동자의 국회의원(하원) 의석 수 점유비율을 적어도 50% 보장하였지만, 2014년 헌법은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하지 않고 법률에 의해 적절한 대표성을 부여한다고만 명시하였다. 아울러 2014년 헌법은 청년, 기독교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비율을 명시하지 않고 모호한 내용으로 기술하였다.

넷째, 2014년 헌법은 경찰에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최고경찰위원회(Supreme Police Council: SPC)의 설치를 명시하였다. 하지만 경찰위원회



의 설치에 경찰의 개혁을 요구하는 법률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수월하게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다섯째, 2014년 헌법은 상원에 해당하는 슈라위원회(Shura)를 폐지하였다.

여섯째, 2012년 헌법은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의 임명권을 부여하였으나, 2014년 헌법은 최고사법위원회(Supreme Judicial Council: SJC)에 임명권을 부여하였다.

군사적 측면에서 2014년 헌법은 군부예산의 독립과 군사재판 등에서 변화를 추구하였지만,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첫째, 2012년과 2014년 헌법 모두는 군부예산을 법률적 감시와 감독으로부터 보호해주었다. 헌법은 군부예산의 심의, 감독, 감사 권한을 의회의 입법자들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라 국가국방위원회(National Defence Council: NDC)에 부여하였다. 군부예산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 무르시 정권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군부의 막강한 권력과 집단 의식에 실패하였으며, 결국 군부의 쿠데타와 무르시의 축출로 이어졌던 이집트의 가장 커다란 난제였다.

둘째, 2012년 헌법은 민간인이 군부에 해를 끼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군사재판을 허용하였지만, 2014년 헌법은 범죄의 구성 여건(군부관련 시설에 대한 범죄행위 등)을 더욱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범죄 구성 여건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민간인들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부여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면, 군부관련 시설의 범주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등이다. 군사재판소 소장인 마흐다트 라드완 가지(Medhat Radwan Ghazi)는 군부가 운영하는 주유소의 직원과 논쟁을 벌이는 행위와 같이 군부관련 시설에서의 범죄행위는 군사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헌법이 지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의 핵심은 선출된 실체(대통령)에 부여되는 민주적 특권과 선출된 실체에 의해 임명된 실체(군부)가 지니고 있는 특권의 괴리와 힘의 균형 문제였다. 이집트의 대통령은 국민투표에 의해 당선된 인물이지만, 군부의 실세 조직인 SCAF의 위원들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다. 헌법의 내용들 중 군부가 독립적인 실체로 존재할 수 있도록 군부



에게 규정과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점, 예산의 편성과 운영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독립권을 부여한 점, 그리고 군부 최고지도자인 국방장관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점 등은 국가 운영의 두 주체로 간주되고 있는 대통령과 군부의 힘의 균형 문제에서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였다.<sup>46)</sup> 또한 군부가 민간인을 재판할 수 있는 사법권을 가지게 된 점, 사법부에 거의 군부 수준의 독립적 권한을 부여한 점, 그리고 경찰 조직에 필요한 제한 조치를 부여하기보다 거의 면책 특권 수준의 권한을 부여한 점 등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결론적으로 이집트의 2012년 헌법과 2014년 헌법의 개정 및 수정 내용은 이집트의 정치권력구조와 힘의 균형 상황을 가장 잘 대변해주고 있는데, 이집트의 이슬람주의 세력은 1971년 헌법 제정 당시부터 2014년 헌법 개정까지 군부와 사법부 중심의 세속주의 세력에 압도되었으며, MB가 권력을 장악했던 2012년 헌법 제정 당시에도 세속주의 세력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시키지 못함으로써 결국 이집트의 힘의 균형 상태를 실현시키지 못했다. 향후 이집트의 정치권력과 힘의 논리는 군부와 사법부 중심의 세속주의 형태로 진행될 것이며, 이슬람주의의 부흥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알 시시 정권의 정책 실패가 가시화되고 구체화되면 제2의 아랍 스프링과 이슬람주의의 부흥이 빠른 시일 내에 목격될 수도 있다.

[주제어: 2014년 이집트 헌법, 이슬람, 군부, 알 시시, 샤리아, 정치권력구조, 힘의 균형]

46) <http://english.ahram.org.eg/News/82330.aspx>



## 참고문헌

- 서정민(2014). “아랍의 봄 이후 새로운 중동의 정치역학”, 2014 KIEP 신홍지역 연구 통합학술회의, 2014. 11. 25.
- 이성수(2013). “이슬람식 민주주의의 모델과 아랍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중동학회논총』 제33권 제3호,
- 황병하(2013). “아랍 스프링 이후 이집트의 정치권력구조 변화”,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23-3집.
- 황병하(2014). “2012년 이집트 헌법의 주요 내용 분석 및 평가”,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24-3집.
- al-Jam'iyya al-Ta'sisiyya, Mashru' Dustur Jumhuriyyat Misr al-Arabiyya, Markaj Matbu'at Majlis al-Shura, 2012/11/30
- Jumhuriyyat Misr al-Arabiyya Mashru' Dustur 2013, al-Wathiqah al-Dusturiyya al-Jadida ba'da Ta'dil Dustur 2012 al-Mu'attal.
- Proposed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2013/8/30
- Constitution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1971
- Abdullah, Al-Arian. Egypt: Dr. Frankenstein's Constitution, Aljazeera(10/07/2013)
- Anthony, F. Lang, JR. From Revolution to Constitution: the Case of Egypt, 89 International Affairs 345(2013)
- Bassem, Sabry. First Look at Egypt's Constitutional Declaration, Al-Monitor (08/07/2013)
- Brown, Nathan J. Egypt's Daring Constitutional Gang of 50, Foreign Policy (20/09/2013)
- Mahdi, Amal. Muqarana bayna Dustur 2012 wa Dustur 2013.
- Otto, Jan Michiel.(2008) Shari'a and National Law in Muslim Countries, Leiden: Amsterdam Univ. Press.
- Zaid, Al-Ali, The New Egyptian Constitution: An Initial Assessment of Its Merits and Flaws, Open Democracy(26/12/2012)
- \_\_\_\_\_, Another Egyptian Constitutional Declaration, Foreign Policy (09/07/2013)
- <http://www.albawabhnews.com/305862>(Search: 2014.3.25).
- <http://www.sis.gov.eg/En/Templates/Articles/tmpArticles.aspx?CatID=208#>(Search: 2014.3.25).
- <http://www.egyptindependent.com/news/egypt-s-draft-constitution-translated>(Search:



- 2014.3.25).  
<http://www.idea.int>(Search: 2014.4.27).  
<http://www.aljazeera.com/indepth/opinion/2013/07/201371011199459549.html>(Search: 2014.4.27).  
<http://onlinelibrary.wiley.com.proxy.win.edu/doi/10.1111/1468-2346.12021/pdf>(Search: 2014.6.23).  
<http://www.al-monitor.com/pulse/orogonals/2013/07/egyptian-constitutional-declaration-post-morsi-transition.html>(Search: 2014.6.23).  
<http://www.bbc.co.uk/news/world-africa-13313370>(Search: 2014.3.25).  
<http://www.bbc.uk/news/world-middle-east-25904575>(Search: 2014.1.27).  
<http://www.bbc.com/news/world-middle-east-28746899>(Search: 2014.1.27).  
<http://www.bbc.com/news/world-middle-east-26188023>(Search: 2013.12.20.).  
<http://www.bbc.uk/news/world-middle-east-20555478>(Search: 2014.3.25).  
<http://gerarddirect.com/2012/12/04/analysis-egypts-draft-constitution-most-islamic-in-egypts-history>(Search: 2014.1.27).  
<http://www.constitutionnet.org/vl/item/new-constitution-arab-republic-egypt-approved-30-nov-2012>  
(Search: 2014.3.25).  
<http://www.tilj.org/content/journal/47/num1/Feuille237.pdf>(Search: 2014.4.22).  
<http://blogs.loc.gov/law/2013/01/egypts-new-constitution-general-overview>(Search: 2014.3.25).  
<http://www.dailynewsegypt.com/2012/10/30/egypts-constitutional-experience-2>(Search: 2014.2.23).  
<http://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eg.html>(Search: 2014.5.25).  
[http://mideast.foreignpolicy.com/posts/2013/07/09/another\\_egyptian\\_constitutional\\_declaration](http://mideast.foreignpolicy.com/posts/2013/07/09/another_egyptian_constitutional_declaration) (Search: 2014.4.10).  
[http://mideast.foreignpolicy.com/posts/2013/03/27/egypt\\_s\\_constitution\\_swings\\_into\\_action](http://mideast.foreignpolicy.com/posts/2013/03/27/egypt_s_constitution_swings_into_action)(Search: 2014.3.25).  
<http://carnegieendowment.org/2013/09/20/egypt-s-daring-constitutional-gang-of-50/gny0>(Search: 2014.2.27).  
<http://carnegieendowment.org/files/comparing-Egypt-s-constitution.pdf>(Search: 2014.3.17).  
<http://egyptelections.carnegieendowment.org/2012/12/14/islam-in-egypts-new-constitution>(Search: 2014.3.17).  
<http://egyptelections.carnegieendowment.org/2013/01/04/controversial-articles-in-the-2>



012-egyptian-constitution(Search: 2014.3.17).  
<http://english.ahram.org.eg/News/75631.aspx>(Search: 2014.3.25).  
<http://english.ahram.org.eg/News/81649.aspx>(Search: 2014.3.25).  
<http://english.ahram.org.eg/News/80807.aspx>(Search: 2014.3.25).  
<http://english.ahram.org.eg/News/81656.aspx>(Search: 2014.4.10).  
<http://english.ahram.org.eg/News/82208.aspx>(Search: 2014.4.10).  
<http://english.ahram.org.eg/News/82242.aspx>(Search: 2014.3.25).  
<http://english.ahram.org.eg/News/81171.aspx>(Search: 2014.3.25).  
<http://english.ahram.org.eg/News/81656.aspx>(Search: 2014.3.17).  
<http://english.ahram.org.eg/News/81939.aspx>(Search: 2014.4.10).  
<http://english.ahram.org.eg/News/81463.aspx>(Search: 2014.3.25).  
<http://english.ahram.org.eg/News/82330.aspx>(Search: 2014.3.17).  
<http://www.aljazeera.com/indepth/opinion/2013/07/201371011199459549.html>.(Search: 2014.3.17).  
<http://www.aljazeera.com/news/middleeast/2014/01/what-egypt-proposed-new-constitution-201411312385987166.html>(Search: 2014.4.10.).  
<http://carnegiendowment.org/2014/05/05/grading-egypt-s-roadmap-toward-democracy/ha4c>.(Search: 2014. 7.28)  
<http://en.wikipedia/wiki/shari'a>(Search: 2014.7.23).

논문접수일: 2015년 1월 2일

심사완료일: 2015년 2월 6일

게재확정일: 2015년 2월 6일